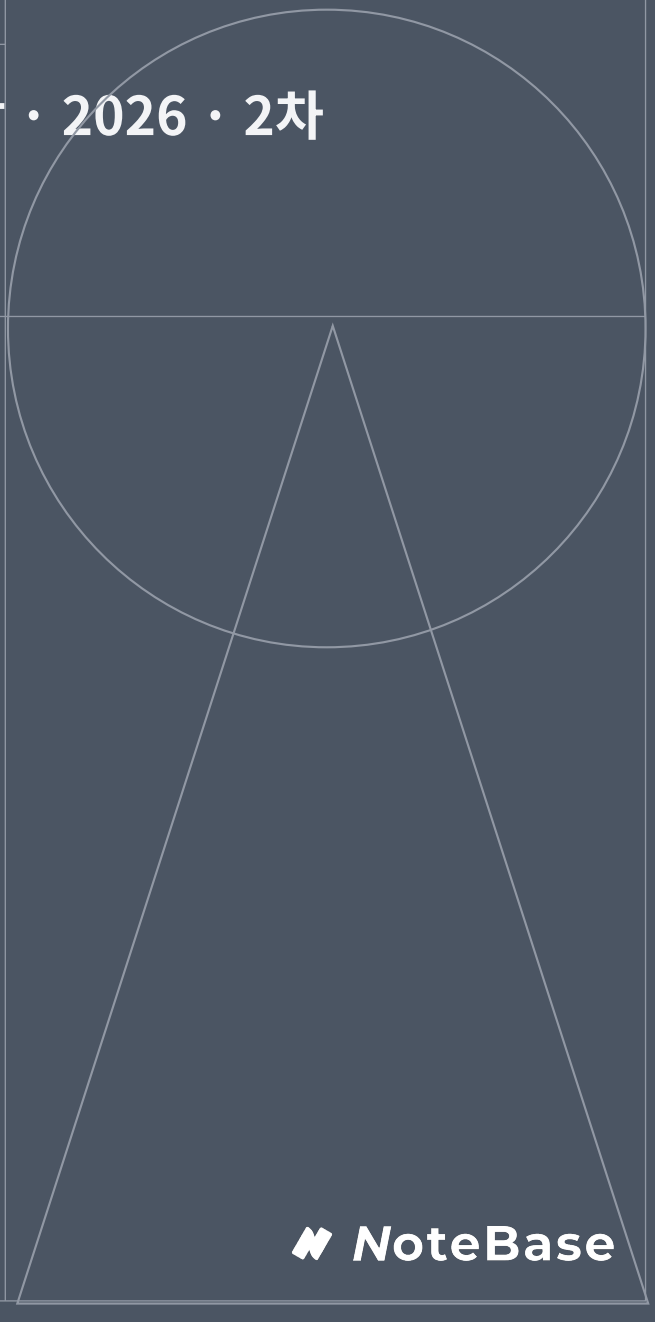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6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6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6 · 2차

문 1. 집단 내에서 개인이 익명성을 가질 때, 정상적인 억제력이 약화되어 집단의 규범에 따라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에 해당하는 개념은?

①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②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③ 사회 촉진(social facilitation)

④ 몰개인화(deindividuation)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집단 속 **익명성으로 자기 통제와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해지는** 현상이 몰개인화이다. 개인적 억제보다 집단 규범의 영향을 더 받아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할 수 있다.

개념 구분

몰개인화: 집단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자신을 의식하고 행동을 점검하는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때 **개인적 억제가 약해지고 집단 규범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 핵심이다. 문항의 '익명성', '억제력 약화', '집단 규범에 따른 충동적·파괴적 행동'은 몰개인화를 가리킨다. 다만 행동의 방향은 집단 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몰개인화가 언제나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태만과의 구분: 사회적 태만은 공동 과제에서 개인의 기여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개인이 기울이는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익명성이 관련될 수 있지만, 문항은 노력의 감소가 아니라 행동을 억제하는 통제의 약화를 설명한다.

집단 극화와의 구분: 집단 극화는 집단 토의 등을 거치면서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지니던 태도나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더 극단화되는** 현상이다. 익명성 때문에 개인의 억제가 약해지는 몰개인화와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2. 대뇌피질의 영역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정엽은 운동피질이 속해 있는 영역으로서 자발적 운동을 통제한다.

② 후두엽은 체감각피질이 속해 있는 영역으로서 촉각 정보를 처리한다.

③ 전두엽은 시각피질이 속해 있는 영역으로서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④ 측두엽은 청각피질이 속해 있는 영역으로서 청각 정보를 처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측두엽에는 **청각피질**이 있어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 등 청각 정보를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발적 운동을 통제하는 일차 운동피질은 **전두엽**에 있다. 두정엽에는 일차 체감각피질이 있어 촉각 등 신체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처리한다.

② X: 촉각 정보를 처리하는 일차 체감각피질은 **두정엽**에 있다. 후두엽에는 일차 시각피질이 있어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③ X: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일차 시각피질은 **후두엽**에 있다. 전두엽에는 일차 운동피질이 있어 자발적 운동을 통제한다.

④ O: 측두엽에는 **청각피질**이 있다. 청각피질은 귀를 통해 전달된 소리 정보를 받아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 등의 특성을 처리한다.

NoteBase

문 3. 다음 각 사례와 게슈탈트(Gestalt)심리학의 지각 조직화 원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로세로 같은 간격으로 의자가 배열되어 있으며, 의자의 색은 빨강 또는 파랑이다. 한 열에는 모두 빨강 의자, 다음 열에는 모두 파랑 의자와 같은 식으로, 빨강 의자와 파랑 의자가 번갈아 놓여 있을 때 같은 색의 의자끼리 하나의 무리로 묶여 보인다.
(나) 크기와 색이 제각각인 새들이 흩어져 날다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틀자 하나의 무리로 묶여 보인다.
(다) 간판 전구 몇 개가 고장 나 원 테두리의 일부가 끊어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온전한 원으로 알아본다.

① (가): 근접성, (나): 공통 운명, (다): 폐쇄성
② (가): 근접성, (나): 유사성, (다): 연속성
③ (가): 유사성, (나): 공통 운명, (다): 폐쇄성
④ (가): 유사성, (나): 공통 운명, (다): 연속성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의자 사이의 간격이 같아도 **같은 색**끼리 묶여 보이므로 유사성에 해당한다. (다)처럼 끊어진 부분을 메워 온전한 도형으로 지각하는 것은 **폐쇄성**이다.

대응 관계 해설

(가) 유사성: 색·모양·크기 등 **속성이 비슷한 대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지각하는 원리이다. 의자들은 가로세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지만 같은 색끼리 묶여 보이므로, 집단화의 단서는 거리보다 색의 유사성이다. 근접성은 서로 가까이 있는 대상끼리 묶여 보이는 원리이므로 이 사례의 결정적 단서와 다르다.

(나) 공통 운명: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대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지각하는 원리이다. 새들의 크기와 색이 서로 달라도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하나의 무리로 보이므로, 외형의 유사성이 아니라 움직임의 공통성이 집단화의 근거이다.

(다) 폐쇄성: 윤곽의 일부가 빠져 있어도 **빈 부분을 보완하여 완전한 형태**로 지각하는 원리이다. 전구가 고장 나 원 테두리가 끊어졌지만 온전한 원으로 알아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연속성은 선이나 곡선이 이어지는 방향을 따라 매끄럽게 계속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원리이므로, 이 사례에서 핵심인 불완전한 윤곽의 완성과 구별된다.

(가) 유사성, (나) 공통 운명, (다) 폐쇄성의 연결은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다음 사례에서 아이의 행동 수정에 적용된 학습 원리는?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계속해서 울거나 짜증을 낸다.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를 달래주지만, 이후부터는 울거나 짜증을 내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점차 울거나 짜증을 내는 행동을 덜 한다.

① 소거
② 타임아웃
③ 정적 강화
④ 자극-반응 연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울거나 짜증을 낼 때 주어지던 부모의 관심이 사라지자 그 행동이 줄었다. 이처럼 **행동을 유지하던 강화를 중단**하여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원리가 소거이다.

핵심 풀이

소거: 이전에 강화받던 행동에 더 이상 강화가 뒤따르지 않게 하여 그 행동이 감소하는 과정이다. 사례에서는 부모가 달래주며 보인 관심이 울음과 짜증을 유지하는 강화물로 작용했다. 이후 부모가 같은 행동에 반응하지 않자 아이는 **울거나 짜증을 내도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그 행동의 빈도가 줄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적용된 학습 원리는 소거이다.

타임아웃과의 구분: 타임아웃은 문제행동 뒤 일정 시간 동안 강화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절차이다. 이 사례의 결정적 단서는 별도의 제한 시간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울음과 짜증에 뒤따르던 관심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동을 유지하던 강화의 중단에 초점을 두므로 소거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5. 신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포함된다.

②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성된다.

③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된다.

④ 체성신경계는 불수의적 근육 운동을 통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불수의적 근육 운동'은 체성신경계의 주된 기능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의 수의운동**을 주로 담당하며, 내장 평활근과 심장근의 불수의적 활동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다. 뇌는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행동을 조절하며, 척수는 뇌와 말초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고 척수반사의 중추로 작용한다.

② O: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신체 각 부위를 연결하며, 기능적으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한다. 체성신경계는 신체의 감각 정보를 전달하고 골격근 운동을 담당하며, 자율신경계는 내장기관의 활동을 조절한다.

③ O: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한다. 교감신경계는 대체로 위급하거나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심박수를 높이는 등 신체를 준비시키고, 부교감신경계는 **휴식과 소화**를 돕는다. 두 계통은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여 신체 내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④ X: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을 지배하며 **수의운동을 주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이 골격근에 신호를 전달한다. 내장 평활근과 심장근의 불수의적 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이다. 다만 골격근의 반사운동도 체성신경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체성신경계가 의식적인 운동만 담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6. 다음 설명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 공격, 분노 등 정서 경험을 조절하며, 즉각적인 정서 반응도 관리한다.
◯ 타인의 얼굴 표정 속에 담긴 정서를 해석하는 것에 관여한다.

① 소뇌
② 시상하부
③ 편도체
④ 해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편도체는 공격·분노와 같은 정서 반응에 관여하며, **얼굴 표정의 정서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두 단서는 자극이 어떤 정서적 의미를 지니는지 평가하고 반응하는 기능으로 연결된다.

핵심 풀이

정서 반응: 편도체는 자극의 정서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여한다. 따라서 제시문의 '공격, 분노 등 정서 경험'과 '즉각적인 정서 반응'은 **편도체의 정서 처리 기능**을 가리킨다.

얼굴 표정 해석: 타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지, 화가 났는지 등을 파악하려면 표정에 담긴 정서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편도체는 이러한 **표정의 정서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여하므로 두 번째 설명에도 부합한다.

다른 영역과의 구분: 시상하부도 정서와 관련되지만,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해 **정서에 수반되는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과 구별해야 한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의 형성에, 소뇌는 운동의 협응과 균형 유지에 주로 관여한다. 제시문처럼 정서 반응과 얼굴 표정의 정서 해석을 함께 설명하는 영역은 편도체이다.

NoteBase

문 7. 에릭슨(Erikson)의 성격 발달 단계와 심리 사회적 위기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영아기(0~1세) — 신뢰감 대 불신감

② 학령기(6세~사춘기) — 정체감 대 열등감

③ 성인 초기(20~40대 초) — 친밀감 대 고립감

④ 중년기(40~60대) — 생산감 대 침체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학령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정체감 대 열등감'이 아니라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대 역할 혼미'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아기(0~1세)의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다. 양육자가 먹이기와 돌봄 등 기본 욕구에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반응**하면 타인과 세상을 믿는 신뢰감이 발달하고, 돌봄이 불안정하면 불신감이 생기기 쉽다.

② X: 학령기(6세~사춘기)의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학습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을 기르지만, 반복된 실패나 타인과의 비교로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 '정체감'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탐색하는 청소년기의 '정체감 대 역할 혼미'에 해당한다.

③ O: 성인 초기(20~40대 초)의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다. 자신의 정체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신뢰와 헌신을 나누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며, 이러한 관계를 맺기 어려우면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

④ O: 중년기(40~60대)의 위기는 '생산감 대 침체감'이다. 생산감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후배 지도, 사회적 기여 등을 통해 **다음 세대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관심과 활동을 뜻한다. 이러한 관심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면 침체감을 경험할 수 있다.

NoteBase

문 8. (가) ~ (라)의 사례와 A ~ D의 강화 계획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마를 5회 할 때마다 5,000원의 용돈을 받는다.
(나) 사장이 부서를 방문하는 그 순간 일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 사장의 방문이 불규칙적이지만 사원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꾸준히 일을 한다.
(다) “평균 100번 당길 때마다 당첨된다.”는 도박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는커녕 이후 도박 중독에 빠진다.
(라) 지각하지 않고 정시출근을 하는 직원에게 매주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A. 고정간격 계획(fixed-interval schedule)
B. 변동간격 계획(variable-interval schedule)
C. 변동비율 계획(variable-ratio schedule)
D. 고정비율 계획(fixed-ratio schedule)

① (가): A, (나): B, (다): C, (라): D
② (가): B, (나): A, (다): C, (라): D
③ (가): D, (나): B, (다): C, (라): A
④ (가): D, (나): C, (다): B, (라): A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는 **불규칙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방문한 사장에게 일하는 모습이 확인될 때 보상받으므로 변동간격 계획이다.
(다)는 당첨까지 필요한 **반응 횟수가 달라지는** 변동비율 계획으로, '평균 100번'은 매번 100번째에 당첨된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강화 계획은 어떤 조건에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는지를 정한 것이다. '비율'은 강화까지 필요한 반응 횟수를, '간격'은 강화 기회 사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횟수나 시간이 일정하면 고정, 달라지면 변동 계획이다.

(가) → D, 고정비율 계획: 안마를 **5회 할 때마다** 5,000원을 받으므로 강화에 필요한 반응 횟수가 일정하다. 기준은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안마를 한 횟수이며, 5,000원이라는 보상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나) → B, 변동간격 계획: 사장의 방문 간격이 불규칙하고, 방문 순간 일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보너스가 주어진다. 강화 기회가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으로 생기는 것이 핵심이다. 사원은 다음 방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꾸준히 일하게 되며, 정해지지 않은 작업 횟수를 채우면 보상을 받는 변동비율 계획과 구별된다.

(다) → C, 변동비율 계획: '평균 100번 당길 때마다 당첨'은 당첨까지 필요한 반응 횟수가 달라지지만 장기적으로 평균이 100회라는 뜻이다. **항상 100회째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시도에서 당첨될 가능성 때문에 계속 당기는 행동이 유지될 수 있다. 이는 경과 시간이 아니라 당기는 횟수와 관련된 강화 계획이다.

(라) → A, 고정간격 계획: 지각하지 않고 정시출근하는 행동에 대해 **매주라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일정 횟수의 출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의 규칙적인 보상 시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고정간격 계획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 D, (나) B, (다) C, (라) A의 대응은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위급 상황에서 방관자 개입과 도움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관자 효과란 목격자가 많을수록 개인이 나서서 돕는 행동을 할 개연성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② 방관자 모두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란 모두가 서로의 태연한 반응을 보고 상황을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서로를 오도하는 상태이다.

③ 책임감 분산이란 다른 목격자가 있을 때 개입 책임이 여럿에게 나뉘어 개인의 개입이 억제되는 것이다.

④ 집단사고(groupthink)가 개입되어 위급 상황의 목격자 수가 많을수록 도움 행동이 줄어든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목격자가 많을 때 개인의 도움 행동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방관자 효과**이며, 책임감 분산과 방관자 모두의 무지로 설명한다. 집단사고는 집단의 합의를 우선하다가 비판적 검토가 약해지는 의사결정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방관자 효과는 다른 목격자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개인이 도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목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주변의 반응을 살피며 개입을 미룰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도움 행동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며, 목격자가 많으면 누구도 절대 돕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방관자 모두의 무지는 각자가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침착한 모습을 근거로 위급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모두가 연기를 보고도 주변의 반응만 살피면, 서로의 무반응을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근거로 상황의 위급성을 잘못 판단**한다는 점이다.

③ O: 책임감 분산은 목격자가 여럿일 때 도움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고 여겨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알아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돕겠지'라고 생각하여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위급성 판단의 오류인 방관자 모두의 무지와 달리, **자신이 개입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약화**가 핵심이다.

④ X: 목격자 수가 많을수록 개인의 도움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은 **방관자 효과**이며, 책임감 분산이나 방관자 모두의 무지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집단사고는 집단 내 합의를 유지하려는 압력 때문에 반대 의견이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선지의 '집단사고가 개입되어'는 '책임감 분산이나 방관자 모두의 무지가 작용하여'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0.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B의 정체성 지위는?

B는 대학 졸업 후 3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고민 끝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현재는 진로상담을 받고 독서, 여행 등을 하며, “어떤 일이 나와 잘 맞을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라고 이야기한다.

①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
②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
③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
④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 진로를 선택하여 전념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탐색은 진행 중이고 확고한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정체성 유예**라고 한다.

핵심 풀이

마샤는 정체성 지위를 탐색과 전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탐색은 진로와 가치관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전념은 특정 대안을 선택하여 자신의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관여하는 것이다.

B의 현재 상태: 진로상담을 받고 독서와 여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고민하는 것은 **적극적인 진로 탐색**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전념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B는 정체성 유예에 해당한다. 과거에 대기업에서 3년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정체성 지위를 성취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체성 성취·유실과의 차이: 정체성 성취는 **탐색을 거쳐 전념이 형성된** 상태이고, 정체성 유실은 충분한 탐색 없이 부모나 주변의 기대 등을 받아들여 전념한 상태이다. B는 현재 진로를 탐색 중이며 아직 선택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상태와 구별된다.

정체성 혼미와의 차이: 정체성 혼미는 전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탐색도 하지 않는** 상태이다. B는 진로상담 등으로 대안을 찾고 있으므로, 단지 진로가 미정이라는 이유로 혼미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11. 지각의 정보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향처리는 감각 정보가 사전 기대나 경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각이 되는 정보처리 방식이다.
ㄴ. 지각 갖춤새(perceptual set)는 기대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하게 함으로써 시야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맹(change blindness)을 줄여 준다.
ㄷ. 단어의 일부분이 가려져 있어 입력되는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단어를 지각하는 것은 기대가 개입하는 하향처리의 예이다.
ㄹ. 하향처리는 자료주도적 처리라고도 하며, 지식에 기반하는 처리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감각 자료에서 출발하는 **상향처리**와 달리, 하향처리는 **지식과 기대를 이용해** 불충분한 정보를 해석한다. 가려진 단어를 알아보는 것은 기존의 단어 지식과 기대가 부족한 감각 정보를 보완하는 하향처리의 예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상향처리는 감각기관에 입력된 색·선·형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자료주도적 처리**이다. 사전 지식이나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자료를 조합하여 대상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하향처리와 구별된다.

ㄴ. X: 지각 갖춤새는 경험이나 기대에 따라 특정 대상이나 사건을 더 쉽게 지각하려는 준비 상태이다. 기대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은 변화는 놓칠 수 있다**. 변화맹은 눈앞의 장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며, 변화를 감지하려면 해당 대상과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대한 정보를 잘 추출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화맹을 줄여 준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ㄷ. O: 단어 일부가 가려지면 감각 입력만으로는 단어의 형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문맥에 대한 기대**를 이용해 무엇이 쓰였는지 해석하는 것은 하향처리이다. 입력 자료를 그대로 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부족한 정보를 보완한다.

ㄹ. X: 하향처리가 지식에 기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를 자료주도적 처리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향처리는 **개념주도적 처리**로, 지식·경험·기대가 감각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자료주도적 처리는 감각 입력에서 출발하는 상향처리를 가리킨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생리적 결핍이 일어나면 생리적 욕구가 나타나며, 이것이 심리적 추동을 통해 생리적 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일으킨다. 인간은 신체 내에서 안정된 상태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정상태가 어떤 이유로 깨지면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한다.

① 본능이론(instinct theory)
② 유인이론(incentive theory)
③ 추동감소이론(drive-reduction theory)
④ 반대과정이론(opponent-process theory)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생리적 결핍으로 생긴 **내적 추동을 줄여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설명하므로 추동감소이론에 해당한다.

핵심 풀이

추동감소이론은 생리적 결핍이 추동을 일으키고, 이 추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추동은 결핍에서 비롯되어 행동을 촉진하는 내적 긴장 상태이며, 항상성은 신체 내부를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성질이다. 지문의 '생리적 결핍'과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은 **결핍 → 추동 → 결핍을 해소하는 행동 → 추동 감소**라는 관계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며, 수분이 보충되면 갈증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유인이론과는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의 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추동감소이론은 **신체 내부의 결핍과 긴장**에, 유인이론은 보상처럼 **외부에서 행동을 끌어당기는 자극**에 초점을 둔다. 이 지문은 외부 보상의 매력보다 생리적 균형의 회복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13. DSM-5의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격장애 진단기준 중 하나는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났는가의 여부이다.

② A군 성격장애는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장애로 편집성(paranoid), 분열성(schizoid), 분열형(schizotypal) 성격장애가 이에 속한다.

③ B군 성격장애는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은 행동이 주된 특징이며 반사회성(antisocial), 연극성(histrionic), 우울성(depressive), 경계선(borderline) 성격장애가 이에 속한다.

④ C군 성격장애는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의존성(dependent), 회피성(avoidant) 성격장애가 이에 속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우울성'은 DSM-5의 B군 성격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B군에는 반사회성·연극성·경계선 성격장애와 함께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성격장애의 일반 진단기준에는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개인이 속한 문화의 기대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문화적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으며, 그 양식이 경직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이나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지 등도 함께 판단한다.

② O: A군은 **기이하고 괴상한 특성**을 공통으로 하며 편집성·분열성·분열형 성격장애가 속한다. 편집성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 분열성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부족, 분열형은 기이한 사고와 행동이 두드러진다.

③ X: B군의 공통 특징을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다고 설명한 부분은 맞지만, 포함되는 장애를 잘못 제시했다. B군은 반사회성·연극성·자기애성·경계선 성격장애로 구성되므로 **'우울성'을 '자기애성'으로 고쳐야 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며 공감이 부족한 특성을 보인다. 우울성 성격장애는 DSM-5의 10가지 성격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O: C군은 **불안과 두려움**을 공통 특징으로 하며 강박성·의존성·회피성 성격장애가 속한다. 강박성은 완벽주의와 통제에 대한 집착, 의존성은 타인의 돌봄에 대한 과도한 욕구, 회피성은 거절에 대한 민감성과 그에 따른 대인관계 회피가 두드러진다.

NoteBase

문 14.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지루한 과제를 재미있다고 말한 대가로 큰 보상을 받은 사람보다 작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 과제를 더 재미있었다고 평가한다.
ㄴ. 자기지각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적 태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ㄷ.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 심하여 기존의 태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인지부조화를 많이 느끼지 않는다.
ㄹ. 인지부조화 이론은 태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약한 경우를, 자기지각 이론은 태도가 분명하고 관여도가 높은 경우를 각각 더 잘 설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태도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더라도 큰 보상이나 강한 압력처럼 **충분한 외적 정당화**가 있으면 인지부조화가 작다. 반대로 작은 보상만 받았다면 행동을 외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워, 부조화를 줄이려고 과제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인지부조화 이론은 서로 모순되는 태도와 행동에서 생긴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려는 과정을 설명한다. 지루한 과제를 재미있다고 말하면 실제 평가와 발언이 어긋난다. 큰 보상은 '보상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작은 보상은 **행동을 정당화할 외적 이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작은 보상을 받은 사람은 과제가 실제로 재미있었다고 태도를 바꾸어 부조화를 줄이므로, 큰 보상을 받은 사람보다 과제를 더 재미있었다고 평가한다.

ㄴ. X: 자기지각 이론은 자신의 내적 태도가 불분명할 때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난 상황을 관찰하여 태도를 추론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별한 보상이나 강요 없이 어떤 활동을 자주 했다면, 자신의 행동을 보고 그 활동을 좋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태도를 먼저 확인한 뒤 행동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행동과 상황을 단서로 내적 태도를 알아낸다는 설명으로 고쳐야 한다.

ㄷ. O: 주변 사람들의 강한 압력으로 기존 태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면, 그 행동을 자신의 태도보다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외적 정당화가 충분하므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모순에서 생기는 인지부조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ㄹ. X: 두 이론이 잘 설명하는 조건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태도가 분명하고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불편감을 일으키고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 반면 자기지각 이론은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약한 경우**에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보고 태도를 추론하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는 ②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학습이론에서 자극 통제(stimulus contr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자극이 있을 때 특정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서 학습한 반응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③ 행동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면서 그 행동이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진다.

④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각 선택지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비율이 그 선택지에서 얻는 강화의 비율과 대체로 일치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극 통제는 학습을 통해 **특정 자극이 있을 때 특정 행동이 더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자극은 해당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알리는 단서로 작용한다.

개념 구분

자극 통제: 과거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한 행동이 강화되었다면, 그 자극이 있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심은 **특정 자극의 유무에 따라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이 켜져 있을 때만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를 주도록 학습시킨 뒤, 불이 켜져 있을 때 지렛대 누르기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다.

자극 일반화: 한 자극에 대해 학습한 반응이 **그와 비슷한 다른 자극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는 반응이 유사한 자극으로 확장되는 것을 설명한다.

소거: 이전에 강화되던 행동에 더 이상 강화가 주어지지 않아 그 행동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다. ③의 초점은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 차이가 아니라 **강화 중단에 따른 행동 감소**에 있다.

대응 법칙: 여러 행동 대안이 있을 때 각 대안에 배분되는 반응의 상대적 비율이 그 대안에서 얻는 강화의 상대적 비율에 대체로 대응한다는 원리이다. ④는 **강화 비율에 따른 행동의 배분**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16. (가) ~ (다)의 사례와 A ~ D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여름 캠프의 두 소년 집단에게 우승 상품이 걸린 시합을 반복시키자, 두 집단은 서로 적대하고 헐뜯으며 상대 집단의 시설을 망가뜨리기까지 하였다.
(나) 무작위로 나뉜 집단인데도, 내집단 동일시가 강한 사람일수록 외집단 구성원에 더 많은 편견·차별을 보였다.
(다) 적대하던 두 집단에게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룰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주고 협력하게 하자, 두 집단 사이의 편견이 줄었다.
A. 현실 집단 갈등 이론
B. 권위주의적 성격
C. 사회정체성 이론
D. 접촉가설

① (가): A, (나): B, (다): C
② (가): A, (나): B, (다): D
③ (가): A, (나): C, (다): D
④ (가): D, (나): C, (다): B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무작위로 나눈 집단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사회정체성** 때문에 외집단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적대하던 집단이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은 접촉가설로 설명한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가) A. 현실 집단 갈등 이론: 한정된 보상이나 자원을 두고 집단들이 경쟁하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여 적대감과 편견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우승 상품을 얻으려는 두 집단의 **보상을 둘러싼 경쟁**이 상대 집단을 헐뜯고 시설을 파괴하는 적대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 C. 사회정체성 이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자아개념의 일부로 삼으며,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실제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도** 집단 구분과 내집단 동일시를 통해 편애나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무작위로 집단을 나누었는데도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외집단에 편견을 보였다는 단서가 이에 해당한다. B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약자·외집단에 대한 적대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두므로, 이 사례의 핵심인 집단 동일시와 구별된다.

(다) D. 접촉가설: 집단 간 접촉이 적절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쟁 대신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상대 집단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협력자로 경험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어느 한 집단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함께 추구하였으므로 편견 감소를 설명하는 접촉가설에 해당한다. 단순히 두 집단을 만나게 하기만 하면 언제나 편견이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가)는 A, (나)는 C, (다)는 D로 연결되며, 이 대응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상황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개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사고방식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한 원인으로 내적, 기질성 요인은 중시하면서 외적, 상황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① 행위자-관찰자 효과(actor-observer effect)

② 상황 귀인(situational attribution)

③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

④ 기본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성격·기질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기본 귀인 오류이다.

개념 구분

기본 귀인 오류: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기본 귀인 오류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내적 요인은 지나치게 중시하고 외적 상황은 경시**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지각했을 때 교통 정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지문의 '다른 사람들', '개인 요인을 과대평가', '상황적 요인을 과소평가'가 이 개념을 가리킨다.

행위자-관찰자 효과: 자신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타인의 행동은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설명하는 경향이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 차이**가 핵심이다. 지문은 이 차이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서 상황의 영향을 경시하는 오류에 초점을 둔다.

상황 귀인: 행동의 원인을 교통 정체, 과제의 난이도, 주변의 압력 같은 **외적 조건**에서 찾는 것이다. 상황의 역할을 경시한다는 지문의 설명과는 방향이 다르다.

이기적 편향: 자신의 성공은 능력이나 노력 같은 내적 요인으로, 실패는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 같은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향이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귀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며, 타인의 행동 원인을 성격에 치우쳐 설명하는 지문의 초점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8. 물체 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성분 재인 이론(recognition-by-components theory)에 따르면 물체는 원통·구·호 같은 소수의 기본 형태인 지온(geon)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재인된다.
ㄴ. 뇌 손상으로 얼굴은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물은 정상적으로 알아보는 안면실인증(prosopagnosia)은 얼굴 재인이 특별한 처리 과정을 거침을 시사한다.
ㄷ. 맥락효과는 자극이 뚜렷하고 분명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며, 자극이 모호할 때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ㄹ. 물체 재인은 장기기억에 저장된 대상 정보와 비교하는 과정 없이, 눈에 들어온 감각 정보만으로 즉각 완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성분 재인 이론에서는 물체를 **기본 형태인 지온의 결합**으로 알아본다. 다른 사물은 알아보면서 얼굴 재인만 어려워지는 안면실인증은 **얼굴 재인에 특화된 처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성분 재인 이론은 물체를 소수의 기본 입체 형태인 지온으로 분해하고, **지온의 종류와 결합 관계**를 통해 물체를 알아본다고 설명한다. 개별 성분만이 아니라 성분들이 어떤 위치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재인에 중요하다.

ㄴ. O: 안면실인증은 시력이 단순히 나빠진 상태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생긴 상태이다. 다른 사물의 재인은 유지되면서 얼굴 재인이 선택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은 **얼굴 재인과 일반 사물 재인의 처리 과정이 구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ㄷ. X: 맥락효과는 주변 정보나 사전 지식이 자극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자극이 **모호하거나 불완전할 때 맥락의 영향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흐릿한 글자도 주변 문장의 의미를 단서로 알아볼 수 있으므로, 자극이 모호할 때 맥락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관계를 거꾸로 제시한 것이다.

ㄹ. X: 물체 재인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들어온 특징을 분석하는 상향처리뿐 아니라 **장기기억에 저장된 대상 지식과의 대조**가 물체의 정체를 알아보는 데 관여한다. 기존 지식과 기대가 감각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하향처리도 있으므로,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는 과정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유발한다.
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으로 불린다.
ㄷ.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신체에서 시상하부-편도체-부신 축이 담당한다.
ㄹ.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지각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위험에 맞서거나 피할 수 있도록 몸이 준비된다. 이를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지각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에너지 동원을 촉진하여 신체가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돕는다.

ㄴ. O: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몸이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는 이러한 행동에 필요한 신체적 준비이다.

ㄷ. X: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내분비 경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다. 시상하부의 신호가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피질에 전달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편도체는 위협을 평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는 데 관여하지만, 이 축에서 뇌하수체를 대신하는 기관은 아니다.

ㄹ. X: 위협에 대처하는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계가 아니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부교감신경계는 위협이 지나간 뒤 심박수를 낮추고 소화 활동을 촉진하는 등 휴식과 회복을 돕는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두 보기를 묶은 조합은 ①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중학생 M은 첫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일을 경험하였다.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이제 수학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M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M은 수학 수업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보건실에 가겠다며 교실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M은 수학 수업 시작종만 울리면 화장실이나 보건실에 가겠다며 교실을 빠져나갔다.

ㄱ. 고전적 조건형성에 따르면 수업 시작종은 조건 자극에 해당한다.
ㄴ. 수업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교실을 나가는 행동은 수동 회피(passive avoidance)에 해당한다.
ㄷ. M이 수학 시간에 교실을 벗어나는 행동은 부적 강화에 의해 유지된다.
ㄹ. M의 경우처럼 수학 시간에 교실을 벗어나는 행동은 소거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교실을 나가 불안한 상황을 피하는 것은 행동을 억제하는 수동 회피가 아니라 **능동 회피**이다. 이 행동은 불안이 줄어드는 결과 때문에 반복되는 **부적 강화**의 사례이며, 회피가 계속되면 두려운 상황이 실제로 안전한지 확인할 기회가 줄어 쉽게 소거되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수업 시작종은 처음에는 공개적 지적에 대한 불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중성 자극이다. 그러나 수학 수업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경험과 반복해서 연결된 뒤에는 종소리만으로 가슴 두근거림과 손에 땀이 나는 불안 반응을 유발한다. 따라서 학습 후의 시작종은 **조건 자극**이고, 종소리에 나타나는 불안 반응은 조건 반응이다.

ㄴ. X: M은 교실에 그대로 있으면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여 불쾌한 상황을 피한다. 이처럼 **어떤 행동을 실행하여** 예상되는 불쾌한 사건을 피하는 것은 능동 회피이다. 수동 회피는 불쾌한 결과를 피하려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ㄷ. O: 교실을 나가면 공개적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불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이후에도 교실을 나가는 행동이 반복된다. **불쾌한 자극의 제거·회피로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부적 강화이다. 여기서 '부적'은 자극을 없애거나 피한다는 뜻이며, 행동을 감소시키는 처벌이라는 뜻이 아니다.

ㄹ. X: 회피 행동은 일반적으로 **소거에 저항적**이다. 교실을 나갈 때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결과가 행동을 계속 강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피로 수업 상황 자체를 피하면, 그 상황에 머물러도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학습할 기회가 줄어 두려움과 회피가 유지되기 쉽다. 따라서 M의 행동을 소거되기 쉽다고 설명할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1. 기질 및 성격검사(TCI)의 척도 중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응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NS)

② 인내력(Persistence: P)

③ 위험 회피(Harm Avoidance: HA)

④ 자율성(Self Directedness: SD)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율성(SD)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성격 척도**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동적 반응 성향을 측정하는 기질 척도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TCI는 유전적 영향을 받는 자동적 반응 경향인 기질과, 자기개념 및 목표·가치의 발달을 반영하는 성격을 구분한다.

① O: 자극 추구(NS)는 **새롭거나 보상이 예상되는 자극에 접근**하고 탐색하려는 반응 경향이다. 새로운 자극에 얼마나 쉽게 흥미를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나타내므로 기질 척도에 해당한다.

② O: 인내력(P)은 **좌절이나 피로에도 행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다.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을 이어 가는 반응 성향을 나타내므로 기질 척도에 해당한다.

③ O: 위험 회피(HA)는 **위험이나 처벌이 예상되면 행동을 억제**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다. 불확실하거나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성향을 나타내므로 기질 척도에 해당한다.

④ X: 자율성(SD)은 선천적인 반응 성향을 측정하는 기질 척도가 아니라 **성격 척도**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정한 목표와 가치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자극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보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2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갔다가, 수풀 속에 뱀이 나타난 줄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뱀이 아닌 버려진 노끈이었다.
D는 놀란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움찔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D는 뱀이 아닌 노끈인 것을 확인한 후 안도감을 느끼며 친구에게 미소를 보냈다.

① 에크만(Ekman)은 문화마다 다른 정서 표현규칙으로 인해 외국인 친구는 그 상황에서 다른 정서 표현을 할 것이라 설명할 것이다.
② 제임스-랑게(James-Lange)는 자율신경계 반응으로 인해 놀람과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할 것이다.
③ 르두(LeDoux)는 편도체의 빠른 정보처리가 착각을 만들었다고 설명할 것이다.
④ 라자러스(Lazarus)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것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에크만은 놀람·공포 같은 **기본 정서의 표정에 문화 간 공통성**이 있다고 보았다. 문화마다 감정을 드러내거나 억제하는 표현규칙은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서 표현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에크만은 놀람·공포 등 기본 정서의 표정이 문화권을 넘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표현규칙은 감정을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드러내거나 억제할지를 정하는 학습된 규범으로,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기본 정서 표정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상황에서 **반드시 다른 정서 표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

② O: 제임스-랑게 이론에서는 자극에 따른 **신체 반응을 지각하여 정서를 경험한다**. 뱀처럼 보이는 대상을 접한 뒤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를 느끼면서 놀람과 공포를 경험한 것으로 설명한다. 신체 반응을 이미 느낀 공포의 결과로만 보는 설명과는 인과 방향이 다르다.

③ O: 르두의 빠른 처리 경로에서는 자극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전에 편도체를 통한 **신속하지만 거친 위협 처리**가 방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뱀과 비슷하게 보이는 노끈에도 먼저 움찔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오경보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 대뇌피질을 통한 자세한 처리가 노끈임을 확인하면 이러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④ O: 라자러스는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가 정서 경험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D는 처음에 대상을 뱀으로 여겨 위험하다고 평가했지만, 노끈임을 확인한 뒤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재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의 변화가 공포에서 안도감으로 바뀐 정서를 설명한다.

NoteBase

문 23.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손상이나 경험에 반응하여 그 구조나 기능을 변화·적응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② 뇌의 가소성은 발달 초기의 결정적 시기에만 국한되며, 성인의 뇌에서는 신경생성이나 구조적 재편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부호화가 일어날 때 장기증강(long-term potentiation)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억의 생물학적 기반을 이루는 뉴런 간 연결성의 증가를 뜻한다.

④ 손이 절단된 사람에게서는 원래 그 손의 촉각을 담당하던 체감각피질 영역을 인접한 얼굴·팔 부위가 대신 담당하도록 뇌지도가 재편되기도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뇌의 가소성은 **발달 초기의 결정적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인의 뇌도 학습과 경험, 손상에 따라 시냅스 연결과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경가소성은 경험이나 손상에 반응하여 신경계의 **구조 또는 기능이 변화하는 능력**이다. 학습에 따른 시냅스 연결의 강화나 손상 후 기능 재편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결정적 시기는 특정 경험이 발달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지, 그 이후 모든 가소성이 사라지는 경계가 아니다. **성인에게도 시냅스 변화와 구조적 재편이 일어난다**.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는 신경생성도 성인 해마 등 제한된 부위에서 보고되므로, 성인의 뇌에서는 신경생성이나 구조적 재편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③ O: 장기증강은 신경 활동을 계기로 **시냅스의 신호 전달 효율이 장기간 높아지는 현상**이다. 같은 입력에도 연결된 뉴런이 더 크게 반응하도록 연결이 강화되며, 이러한 변화는 정보를 부호화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기반 중 하나이다. 여기서 연결성의 증가는 단순히 뉴런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④ O: 손이 절단되어 해당 부위의 감각 입력이 사라지면, 원래 손의 감각을 처리하던 체감각피질이 **인접한 얼굴이나 팔에서 오는 감각 입력에 반응**하도록 재편될 수 있다. 이는 신체 부위별 감각 처리 영역을 나타내는 뇌지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만졌는데 없는 손에서 감각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NoteBase

문 24. 영아기의 반사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빨기 반사(sucking reflex): 볼에 물체가 닿으면 고개를 돌려 입을 벌린다.
ㄴ. 모로 반사(Moro reflex): 갑자기 놀라게 되면 팔을 바깥으로 뻗었다가 오므린다.
ㄷ. 바빈스키 반사(Babinski reflex): 엎드려 놓으면 수영하는 것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인다.
ㄹ. 잡기 반사(grasping reflex): 손바닥에 닿은 물건을 꽉 잡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볼에 닿은 자극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을 벌리는 것은 빨기 반사가 아니라 **근원 반사(젖찾기 반사)**이다.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발가락의 반응이다.

보기별 해설

ㄱ. X: 볼에 물체가 닿으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리는 것은 **근원 반사(젖찾기 반사)**이다. 젖꼭지를 찾도록 돕는 반응이며, 빨기 반사는 젖꼭지나 손가락 등이 입안에 닿았을 때 빠는 반응을 말한다.

ㄴ. O: 모로 반사는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움직임에 놀랐을 때 나타난다. 팔을 바깥으로 뻗었다가 **다시 몸 쪽으로 오므리는** 반응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ㄷ. X: 바빈스키 반사는 영아의 **발바닥을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이 위로 젖혀지고 다른 발가락들이 부채 모양으로 벌어지는** 반응이다. 엎드린 상태에서 수영하듯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반응을 뜻하지 않는다.

ㄹ. O: 잡기 반사는 **손바닥에 닿는 자극에 손가락을 오므려 물체를 잡는** 반응이다. 손바닥에 닿은 물건을 꽉 잡는다는 설명은 이 반사에 해당한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5. 다음 사례에서 A가 사용한 선택 규칙은?

노트북을 사려는 A는 후보 제품 다섯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게이고, 그다음으로 성능, 디자인 순서라고 판단했다. A는 무게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제품 중 무게가 가장 가벼운 제품을 찾았는데, 세 가지 제품의 무게가 동일하였다. 이어서 A는 그다음 중요한 속성인 성능을 기준으로 세 가지 제품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최종적으로 골라 구매했다.

① 사전편찬식 규칙(lexicographic rule)

② 속성 제거 규칙(elimination by aspects rule)

③ 결합 규칙(conjunctive rule)

④ 분리 규칙(disjunctive rul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장 중요한 속성인 무게에서 동률이 나오자, **동률인 제품들만 다음 순위 속성인 성능으로 비교**했다. 이처럼 속성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최우수 대안을 고르는 방식이 사전편찬식 규칙이다.

핵심 풀이

사전편찬식 규칙은 속성의 중요도 순서를 정한 뒤,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고르는 방식이다. 동률이 나오면 **동률인 대안들만 다음 순위 속성으로 비교**한다. A는 무게가 가장 가벼운 세 제품이 동률이어서 그 세 제품의 성능을 비교했고, 성능이 가장 우수한 하나를 선택했다. 성능에서 선택이 끝났으므로 그다음 순위인 디자인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다.

속성 제거 규칙도 속성별로 후보를 좁히지만, 각 속성에 대해 **미리 정한 수용 기준에 미달하는 대안을 제거**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례에서는 일정 무게 이하라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제품들을 남기고 동률을 성능으로 해소했다는 점이 사전편찬식 규칙의 단서이다.

NoteBase